

전기차특구 조성 계획 전면 재수정

도, 금주부터 중기부 컨설팅 진행... 2차 심의 목표
'지역경제와의 연계' 등 맞춰 전략 전면 수정 돌입
블록체인·화장품특구 차질... 도 "전기차 우선 집중"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전기차특구 규제자유특구(이하 전기차특구) 조성 계획이 전면 재수정된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약 한달간 제주도의 전기차특구 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전략 수정에 돌입한다.

제주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중기부에서는 '과감한 규제개혁 모델' 보다 '지역 경제와의 연계성'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중기부는 전기차특구임에도 전기차 제조산업 조성계획이 없어 특구 지정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러한 중기부 요구에 맞춰 수정기로 한 만큼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게다가 특구 명칭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기차 산업의 '에프터마켓(제품 판매 이후 발생하는 관련 부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장)'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가칭 '전기차전후방산업특구' 등으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중기부가 '지역 1특구 신청'을 주문하는 만큼 제주도의 규제자유특구 조성사업 중 블록체인 혁신특구와 화장품 혁신특구 등 추진

은 당분간 중단되게 돼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노 국장은 "우선 전기차특구에 집중하는 것이지 블록체인특구나 화장품특구 조성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현재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감한 규제혁신은 지금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어려울 것 같다"며 "전기차 운행과 재활 등에 집중하는 전후방 산업특구로 계획이 디자인된 만큼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계획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차량 밑에서 대치중인 '툰'과 '제리' 18일 서귀포시 북목동 포구에 세워진 차량 밑에서 맞닥뜨린 고양이와 생쥐가 서로를 쳐다보며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마련을"

원지사, 제2공항 관련 국토부장관과 면담
도민 의견 5개 분야·25개 사업 정부에 전달

원희룡(사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8일 제주도가 제2공항에 따른 공항운영 투자 및 참여 등을 위한 근거조항을 제2공항 기본계획에 마련해 줄 것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원 지사는 이날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 장관과의 약 30여분간을 걸친 면담을 통해 공항운영권과 함께 제2공항 예정지 주민의 주택이주·편입농지 지원 방안을 포함 제주국제공항과 제2공항 간 정시성 확보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소음피해 지역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등 도민 의견 수렴 내용들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주공항과 제2공항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원 지사는 이와 함께 "제주 제2공항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이 지역주민과 도민에게 환원되고, 제주도 전역이 연계 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충분히 논의 중이며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와 김 장관의 이날 면담은 제주지역 공항 운영에 제주도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피해 지역 주민과의 상생·보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항 수익을 제주 도민에게 환원할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제주도 측의 요구로 추진됐다.
한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오는 23일 완료되며,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 고시될 예정이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신차·중고차 구입은 제주은행 자동차대출

우대금리 이벤트 진행중 (~8월 31일까지)
제주은행
문의 : 1588-0079(번)

제주 도착 미생물자원 산업화 본격화

산자부 신규 사업에 선정
180억 투입 지원센터 건립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도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에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신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총 180억원(국비 80억·

도비 10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유용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레리 소재 (재)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 연구소 부지 내에 연면적 3000㎡(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시험생산동(Pilot Plant)과 기업 입주공간, 산업화 지원동으로 구성되며, 미생물 연구 전문장비 52종도 구축·운영될 예정이다. 또 센터 운영을

위한 10여명의 운영인력을 확보해 기업지원과 전문기업을 육성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미생물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생물자원과의 융·복합을 통해 사업 경쟁력 확보와 관련 산업 활성화 등 국내 미생물 활용 바이오산업 집적화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 주관기관인 (재)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미생물자원 사업화를 통해 113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9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 등을 예상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2019 JDC와 함께 생각을 춤추게하는 NIE 공모전

공모기간: 2019년 10월 13일(일)
공모대상: 도내 초·중·고등학생
공모분야: NIE 학습활동 및 스크랩
형식: 활동지(크기 자유) 10매 이상
시상:
-개인 > 대상 1명(상금 40만원)
> 금상 4명(각 20만원)
> 은상 4명(각 15만원)
> 동상 11명(각 10만원)
-단체 > 대상 1팀(상금 40만원)
> 최우수 7팀(각 20만원)
> 우수 5팀(각 15만원)

지도자 및 지도교사상: 1명 (교육감상 또는 한리일보 대표이사상, 상금 20만원)
※단체상은 일반 및 학교부문 응모. 단, 일반 부문은 팀당 3명 제한, 학교는 반 또는 동아리, 부문별 출품작 수와 작품 수준에 따라 시상내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인·팀 부문 이중지원 안됩니다.)
접수처: 우편(제주시 서서로 154 한리일보사 4층 편집국 NIE 공모전 담당자) 또는 방문 접수

문의 : 010-2024-5692

소상공인의 더 좋은 내일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응원합니다!

6월 20일(목) OPEN!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의 소중한 꿈에 희망을 더해 드리고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문을 엽니다.
창업지원, 교육·컨설팅, 재기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의 시작부터, 성공까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
- 현장·종합 컨설팅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 소상공인 경영포럼

Jeju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제주시 연복로 33 KT&G 제주본부 4층 (제주신용보증재단)
T 064.758.5710 F 064.758.5712